

2018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해설

본 해설은 현직 선생님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손수 만드신 재창작물입니다.
따라서 본 해설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

1	⑤	2	③	3	③	4	②	5	②
6	④	7	①	8	②	9	①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①	15	④
16	②	17	①	18	④	19	②	20	①
21	①	22	⑤	23	②	24	③	25	①
26	⑤	27	⑤	28	③	29	②	30	①
31	④	32	④	33	③	34	⑤	35	①
36	④	37	⑤	38	②	39	③	40	②
41	④	42	③	43	⑤	44	④	45	⑤

[1~3] 화법

[지문 분석]

<u>화석 에너지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배경)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최근의 상황을 언급하며 화제 선정의 이유를 제시함)</u>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제로 에너지 주택’(발표 주제)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로 에너지 주택’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관리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주택입니다. <u>국토교통부와 ○○ 건축학회 홈페이지(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임)</u>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제로 에너지 주택이 어떠한 방법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u>주택에서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6%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u>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u>지금 보시는 화면(시각 자료 활용)</u> 속에 있는 집이 제로 에너지 주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옥상에 설치된 패널을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 160m에도 수십 개의 관을 박아 지열을 끌어 올려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u>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전력 회사에 보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장점 및 가치)</u> 한편 제로 에너지 주택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공법을 이용해 에너지를 잘 지킬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패시브 공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u>다음 영상을 보시죠.(시각 자료 활용)</u> 지금 보시는 실험은 제로 에너지 주택에서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창문은 아르곤 가스를 채운 3중창으로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이 설치된 외벽이 무척 두껍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반 주택보다 다섯 배나 두껍게 설계된다고 합니다. <u>(다음 화면을 보며)(시각 자료 활용)</u> 이뿐만 아니라 이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집 안의 중앙 천장에는 패열 회수 순환 장치를 설치하여 열 손실을 줄였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더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벌써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

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발표 내용과 관련된 기대감)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문 확인]

- 갈래: 발표
- 주제: 제로 에너지 주택의 개념과 장점
- 특징
 -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 최근의 상황을 언급하며 화제 선정의 이유를 제시하였음
 - 발표 내용과 관련된 기대감을 드러내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음
 -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화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냄

1. <답> ⑤

<정답률> 89%

<정답 풀이>

‘제로 에너지 주택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공법을 이용해 에너지를 잘 지킬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에서 중심 화제의 장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단점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 교통부, ○○ 건축학회 홈페이지’ 자료

②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석 에너지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③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④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에서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6%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발표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선택지의 핵심 내용을 지문을 읽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 경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번 : 정보의 출처

2번 : 최근의 상황 언급

3번 : 기대감

4번 : 구체적인 수치

5번 : 중심 화제의 장단점

2. <답> ③

<정답률> 77%

<정답 풀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보이는 창문은 아르곤 가스를 채운 3중창으로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창문의 단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에 이와 관련된 실험을 제시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의 내용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패널의 제작 원리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열을 끌어 올리는 모습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④ ㉡을 통해 외벽 구조의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열 효과를 설명하였다.

⑤ ㉢에 폐열 회수 순환 장치가 설치된 실내의 모습을 제시한 이유는 열 손실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TIP>

자료 활용 방식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은 2문단, ㉡과 ㉢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단을 읽고 선지를 확인하면 된다.

3. <답> ③

<정답률> 90%

<정답 풀이>

청자 2의 반응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갖게 된 의문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청자 1은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열 에너지’와 어떻게 다른지, 또 ‘폐열 회수’는 무슨 뜻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어.’라며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청자 1은 집에서 어머니께 꾸중을 들었던 상황과 관련지어 발표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

④ 청자 2는 보고서 작성을 할 때에 패시브 공법의 내용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발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청자 2는 발표자가 처음에는 너무 여유 있게 발표를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 서둘러 발표를 마무리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TIP>

청중의 듣기 활동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당 유형의 경우 지문 내용보다는 제시된 듣기 활동의 세부 내용과 선지를 비교하여 정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선지의 핵심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번 : 용어 설명

2번 : 상황(경험)

3번 : 의문

4번 : 과제 해결

5번 : 발표 시간 활용

[4~7]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규연: 지난 시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희찬: 우리 반 친구들 몇 명에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 친구들 말이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자신들의 흥미를 끄는 책이 없다고 하더라.

규연: 흥미를 끄는 책은 어떤 걸 말하는 거야?(희찬의 말에 대한 질문)

희찬: 추리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 같은 것 말이야.

윤지: 우리 학교 도서관의 장서 목록을 본 적 있는데, 추리 소설과 판타지 소설이 500여 권이나 있던걸.

민수: 난 도서관에 있는 책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학생들이 도서관에 흥미로운 책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책이 있는지 몰라서 안 오는 거지.(원인 분석)

윤지: 맞아.(긍정적 반응) 매달 새로 들어오는 책에 대한 안내도 잘되지 않고 있어.(문제점)

규연: 사서 선생님께서 도서관 앞 게시판에 새로 들어온 책에 대해 공지하시잖아.

윤지: 도서관에 오지 않는 학생들은 그걸 알 수가 없지.(문제점)

규연: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도서 안내 방법을 마련해야겠네.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

희찬: 학교 식당 안의 벽면에 도서 게시판을 설치해서 새로 들어온 책이나 좋은 책을 안내하는 것은 어때?

윤지: 좋은 생각이네.(긍정적 반응)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게시판을 볼 테니까 홍보 효과가 클 것 같아.(기대 효과)

민수: 그렇기는 해. 그런데 게시판에는 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게 되어 있잖아. 어떤 내용의 책인지 알려 줘야 학생들이 책을 찾아 읽으려고 할거야.(추가 의견)

희찬: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 나눔방을 활용해 보는 건 어때?(의견) 거기에 게시물을 올리면 조회 수도 아주 높을 거야.

규연: 정보 나눔방에 책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는 거지?(희찬의 의견을 확인함)

희찬: 그렇지. 거기에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거지.

윤지: 무엇보다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책에서 찾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하자. 그러면 도서관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야.(기대 효과) 이에 맞춰 정보 나눔방에 올릴 글은 내가 구상해 볼게.

규연: 그럼 난 사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건의문을 써야겠다. 민수야, 네가 그 글을 검토해 줘.

민수: 그렇게

[지문 확인] (가)

• 갈래: 학생들의 대화

• 주제: 저조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 특징

-대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요청함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때, 자신의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함

[지문 분석] (나)

사서 선생님(건의 대상)께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 반장 김규연입니다.(인사말 및 자기 소개) 늘 학생들을 위해 마음을 써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다.(감사 인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문제 상황 제시) 이번 달 도서 대출 대장을 보니, 1,500명이나 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하루 평균 도서 대출 권수가 15권 남짓에 불과하였습니다.(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함)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학교 신문에 실린 설문 조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 절반 이상이 ‘읽고 싶은 책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하였습니다. 도서관에는 매달 20권씩 새로운 책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책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은 도서관에 있는 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원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적극적으로 도서 안내 활동을 하고자 선생님께 두 가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학교 식당 안의 벽면에 도서 게시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건의 내용①) 저희들은 매달 이 게시판을 활용하여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과 도서관에 비치된 책 중 추천할 만한 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학교 식당 안 게시판은 도서관 앞 게시판보다 홍보 효과가 클 것입니다. 둘째(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 나눔방에 도서 관련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건의 내용②) 저희들은 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북돋울 수 있는 글을 수시로 작성해 올릴 계획입니다. 이 페이지가 활성화되면 도서관 이용률도 증가할 것입니다.(기대 효과) 학교 식당 안 게시판과 웹 페이지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이 당번을 정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독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독서 활동의 가치) 도서관 활동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서관 반장 김규연 올림

[지문 확인] (나)

- 갈래: 건의문
- 주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건의
- 특징

- 문제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제시함
- 문제 해결방안과 기대효과를 함께 제시함
-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함

4. <답> ②
<정답률> 89%
<정답 풀이>
㉠에서 민수는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흥미를 끄는 책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③ 사서 선생님께서 도서관 앞 게시판에 새로 들어온 책에 대해

공지하신다는 정보(자신이 알고 있는)를 바탕으로 윤지의 말(책에 대한 안내도 잘 되지 않고 있다.)에 대해 이의를 제시하고 있다.
④ ‘그렇기는 해’라는 반응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고, 게시판에는 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⑤ 규연은 ‘정보 나눔방에 책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라며 질문을 통해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TIP>
말하기 방식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을 읽고 선지를 확인, ㉠을 읽고 선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서는 2번에서 빠르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5. <답> ②
<정답률> 87%
<정답 풀이>
‘윤지’의 마지막 발화에서 ‘무엇보다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책에서 찾아 제시하고(재미있어 할 내용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발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하자고 했다.’
<오답 풀이>
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책에서 찾자고 했지만, 그것이 추리 소설과 판타지 소설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윤지’의 발화에서 쉽고 상세하게 줄거리를 쓴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윤지’의 발화에서 전문가들의 서평을 찾아 소개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윤지’의 발화에서 다양한 질문을 만든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TIP>
담화 맥락을 바탕으로 이어질 대화의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정보 나눔방에 올릴 글의 내용을 묻는 규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므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지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6. <답> ④
<정답률> 82%
<정답 및 오답 풀이>
(나)의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학교 신문에 실린 설문 조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도서관 이용에 관련된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있다.
(나)의 ‘저희 도서관은 적극적으로 도서 안내 활동을 하고자 선생님께 두 가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효과적인 도서 안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해결하기 위한 제안 두 가지㉠) 제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이번 달 도서 대출 대장을 보니~불과하였습니다.’를 통해 도서관 이용 현황을 알 수 있는 도서 대출 대장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P>
글쓰기 전략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유형의 경우

1번에서 5번까지의 글쓰기 계획 중에서 지문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대분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보기 1>과 <보기 2>를 제시하여 <보기 2>의 ㉠~㉢를 <보기 1>의 ㉠~㉢에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확인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7. <답> ①

<정답률> 79%

<정답 풀이>

(나)의 마지막 문단과 ‘규연’이 ‘민수’의 검토 의견에 따라 고쳐 쓴 글을 비교해 보면, 독서가 학업, 진로 선택,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독서의 가치에 대해 서술한 문장을 삭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쳐 쓴 글을 확인하면, 도서관의 도서 안내 활동으로 인해 학교 도서관이 활기차고 생기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건의 사항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독서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건의 사항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은 추가’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독서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였지만, 건의 사항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다.

③ 도서관 활동의 의미는 ‘고쳐 쓴 글’에도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나)에 독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⑤ 도서관 활동의 의미는 ‘고쳐 쓴 글’에도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

<TIP>

고쳐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을 올바르게 고쳐쓰지 못한 것을 확인하는 형태로 출제되는 유형이다. 이 문제의 경우 고쳐 쓴 글을 제시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바뀐 부분을 확인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8~10] 작문

[지문 분석]

‘마을 교육 공동체’란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 등이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마을 교육 공동체의 개념 정의) 교육의 장을 학교 밖으로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책임질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마을 교육 공동체의 목적)

우리 마을에서도 작년부터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시작하였는데, ‘희망 목공 학교’와 ‘마을 숲 생태 학교’라는 두 개의 사업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내가 참여했던 ‘희망 목공 학교’는 우리 마을에서 목공소를 운영하시는 목공 기술자 두 분이 재능 기부를 해 주신 데다, 작업 도구가 잘 갖춰진 그분들의 작업장에서 실습 위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목공 학교’에서는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희망 목공 학교의 가치)

내년에는 ‘희망 목공 학교’와 ‘마을 숲 생태 학교’ 외에 연극 및 직업 탐방과 관련된 사업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본교의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신나는 국악 교실’(내년에 실시하게 될 마을 교육 공동체①②③)이라는 수업도 준비 중이어서 공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을 교육 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을 지역 사회가 나누어 맡아 줌으로써, ‘마을 교육 공동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마을 교육 공동체의 기대 효과)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재능을 나누어 줄 많은 전문 인력과 관계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올해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함께하기를 바란다.

[지문 확인]

• 갈래: 소개하는 글

• 주제: 마을 교육 공동체의 개념과 가치 소개

• 특징

-중심 화제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마을 교육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함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소개함

8. <답> ②

<정답률> 87%

<정답 풀이>

이 글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을 교육 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우리 마을에서도 작년부터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시작하였는데, ‘희망 목공 학교’와 ‘마을 숲 생태 학교’라는 두 개의 사업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와 ‘내년에는 ‘희망 목공 학교’와 ‘마을 숲 생태 학교’ 외에 연극 및 직업 탐방과 관련된 사업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을 교육 공동체’란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 등이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을 지역 사회가 나누어 맡아 줌으로써, ‘마을 교육 공동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글쓰기 계획 반영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선택지의 핵심 내용을 지문을 읽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 경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번 : 추가 정보 얻는 방법

2번 : 재원 요청

3번 : 사업 소개

4번 : 개념 제시

5번 : 기대 효과

9. <답> ①

<정답률> 76%

<정답 풀이>

학생의 초고에서 사업이 극복해야 할 점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초고에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신나는 국악 교실’을 소개하였다.

③ 초고에서 ‘희망 목공 학교’에서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학생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④ 출석률과 만족도가 모두 높았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희망 목공 학교’의 학생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⑤ 초고에서 재능을 나누어 줄 많은 전문 인력과 관계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㉔을 활용하여 공교육에서 일부 교육 활동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TIP>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선택지에서 말한 자료가 지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10. <답> ⑤

<정답률> 78%

<정답 풀이>

조건 ㉑ : 공동체의 특성

조건 ㉒ : 마을 교육 공동체를 권유

조건 ㉓ : 직유법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조건 ㉑) 좋은 양분을 먹고 자란 나무처럼(조건 ㉒)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기 바랍니다.(조건 ㉓)

<오답 풀이>

	조건 ㉑	조건 ㉒	조건 ㉓
①	×	○	×
②	×	×	○
③	×	×	○
④	○	×	×

<TIP>

조건 충족형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유형의 경우 <보기>에서 2, 3가지의 조건이 제시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내용을 선지에서 고르게 하므로 제시된 조건 중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골라 먼저 선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11~15] 문법

11~12번 문법 이론 : 음운의 변동 현상

①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위의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된다.

예) 부엌[부억], 한낮[한낱], 잎[입], 깎다[깍따], 낮잠[낱잠]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된다.

예) 낮이[나지]

2) 비음화: 끝소리가 파열음인 음절 뒤에 첫소리가 비음인 음절이 연결될 때, 앞 음절의 파열음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 ‘ㄱ’은 비음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예) 국물[궁물], 낚는다[냥는다], 부엌 문[부영문]

• ‘ㄷ’은 비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예) 단는[단는], 걸모양[건모양]

• ‘ㅂ’은 비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예) 밥물[밤물], 앞니[암니]

3) 유음화: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 음절의 끝소리 ‘ㄹ’ 뒤에 음절의 첫소리 ‘ㄴ’이 올 때 ‘ㄴ’이 [ㄹ]로 발음된다.

예)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훑는[홀는 → 홀른]

• 음절의 끝소리 ‘ㄴ’ 뒤에 음절의 첫소리 ‘ㄹ’이 오면 ‘ㄴ’이 [ㄹ]로 발음된다.

예) 신라[실라], 놀리[놀리]

4)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 형태소 끝소리의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ㅈ]으로 발음된다.

예) 해돋이[해도지], 굳이[구지]

• 형태소 끝소리의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ㅊ]으로 발음된다.

예) 같이[가치], 밭이[바치]

5)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 ‘ㄱ, ㄷ, ㅂ, ㅅ, ㅈ’은 ‘ㄱ, ㄷ, ㅂ’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입고[입꼬], 묻다[문따], 국밥[국빱], 박사[박싸], 값지다[갑찌다]

• 용언이 활용할 때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은 어간의 끝소리 ‘ㄴ,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신고[신꼬], 넘다[넙따]

• 두 어절 이상이 연결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② 축약

1) 개념: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음운의 축약이라고 한다.

2) 종류

• 자음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

로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 한다.

예) 좋고 → [조코], 많다 → [만타], 업히다 → [어피다], 젓히다 → [저치다]

• 모음 ‘ㅣ’나 ‘ㅏ/ㅗ’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것도 축약이라 한다. 이때 모음 ‘ㅣ’나 ‘ㅏ/ㅗ’는 반모음으로 바뀐다.

예) 가리- + -어 → 가려, 두- + -었다 → 뒸다

③ 탈락

1) 개념: 두 개의 자음이 이어지거나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고 한다.

2) 자음 탈락

• 자음 ‘ㄷ’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몇몇 어미와 결합할 때 ‘ㄷ’이 탈락된다.

예) 울- + -는 → 우는

• 자음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된다.

예) 좋아[조아], 쌓이다[싸이다]

• 음절의 끝소리에 자음 두 개가 오면 하나는 탈락되고 나머지 하나만 발음이 된다.

예) 닭[닥], 삶[삼], 밟고[밥꼬], 훑다[할파]

3) 모음 탈락

•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ㅗ’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된다.

예) 쓰- + -어라 → 써라

• 모음 ‘ㅏ/ㅗ’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ㅗ’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ㅏ/ㅗ’가 탈락된다.

예) 가- + -아서 → 가서

④ 첨가

1) 개념: 두 형태소가 결합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첨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류

•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뒤 형태소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 밤 + 길 → 밤길[밤길], 초 + 불 → 촛불[초뿔/촛뿔]

•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ㄴ, ㄹ’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 코 + 날 → 콧날[콘날→곤날], 이 + 몸 → 잇몸[인몸→인몸]

•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예) 맨- + 입 → 맨입[맨닙], 한- + 여름 → 한여름[한너름]

11. <답> ③

<정답률> 38%

<정답 풀이>

1문단에서 ‘비음화와 자음 축약은 장애음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ㅎ’의 앞이나 뒤에서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와 같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비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⑥는 발음될 때 파열음인 예사소리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㉓에는 자음 축약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㉑와 ㉓는 모두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 필요한 음운 변동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라고 했으므로 ㉑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2문단에서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라고 했으므로 ㉑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㉑와 ㉑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을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④ 1문단에서 비음화와 자음 축약은(㉓)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㉓는 용언의 어간이 ‘뜯기-’이므로 ‘뜯긴’은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TIP>

음운의 변동 현상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음운의 변동 현상에 관한 문제는 정답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문항은 38%로 5번 선지를 택한 학생들이 40%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난이도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㉑~㉑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음운 변동 현상을 지문의 내용과 연관을 시키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즉, 제시된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12. <답> ④

<정답률> 48%

<정답 풀이>

2문단의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살펴보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ㄷ,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ㄷ,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라고 했고, <보기>에서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했으므로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표준 발음인 [국쑤]로 발음되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소리가 된다는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② 2문단의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살펴보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ㄷ,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ㄷ,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규칙적인 현상에 해당한다.

③ 이 글에서 ‘딱딱’은 ‘딱딱’으로 적으면 표준 발음이 [딱딱]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잔뜩’은 <보기>의 한글 맞춤법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의 예시에 해당하므로 뚜렷한 까닭이 있다

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TIP>

한글 맞추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경우 제시된 지문, <보기>, 선지까지 세 가지의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즉, 선지에서 제시된 예시 단어들을 <보기>의 조항과 확인하고, 선지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13번 문법 이론 : 단어 형성법

갈래		형태	예
단일어(單一語)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		실질형태소(1개)	집, 떡, 나무, 돌, 노래, 사랑, 울다, 먹다, 몹시.....
복합어(複合語)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	파생어	형식형태소+실질형태소(접사+어근)	맨손, 덧버선, 시퍼렇다.....
		실질형태소+형식형태소(어근+접사)	선생님, 슬픔, 사랑하다, 높다.....
	합성어	실질형태소+실질형태소(어근+어근)	마소, 손목, 돌다리, 통나무집, 큰집.....
어근(語根)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접사(接詞)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꾸주는 형식 형태소.		

13. <답> ④

<정답률> 75%

<정답 풀이>

㉔의 ‘굽-’과 ‘밀-’은 동사 어근이므로 명사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오이칼 = 명사 ‘오이’ + 명사 ‘칼’ / 껌질칼 = 명사 ‘껌질’ + 명사 ‘칼’ → 명사 어근들을 결합하여 만든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값작값작’과 ‘사각사각’은 부사어이므로 ‘값작값작칼, 사각사각칼’은 부사 어근과 명사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③ ‘까개’는 동사 어근 ‘까-’, ‘깎개’는 동사 어근 ‘깎-’에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박박’과 ‘쓱쓱’은 부사이므로 ‘박박이, 쓱쓱이’은 부사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TIP>

단어의 형성 방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이 필요하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14번 문법 이론 : 문장의 성분과 구조

문장 성분의 성립

(1) 문장 성분의 정의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들. 즉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2) 문장의 기본 골격

기본 골격	서술어의 형태	문장의 종류	예
무엇이 어찌한다	동사	동사문	철수가 공부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형용사	형용사문	영희가 예쁘다.
무엇이 무엇이다	체언 + 서술격 조사	명사문	순자가 회장이다.

(3) 문장 성분의 갈래

주성분 (필수 성분)	주어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서술어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
	목적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보어	주어가 아닌 것으로 ‘되다, 아니다’ 앞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부속 성분 (수의 성분)	관형어	체언을 수식하는 말
	부사어	용언을 한정하는 말
독립 성분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

(4) 문장 성분의 재료

문장 성분의 재료	세부 갈래	
단어(單語)	자립할 수 있는 말과 자립 형태소에 붙으면 쉽게 분리되는 말	
구(句) [중심이 되는 말과 그에 딸린 말의 묶음]	명사구	명사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동사구	동사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형용사구	형용사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관형구	관형사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부사구	부사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독립어구	독립어와 그에 딸린 말들의 묶음
절(節) [온전한 한 문장이 한 문장의 재료가 된 것]	명사절	명사와 같은 구실(주로 주어, 목적어 구실을 한다.)
	서술절	서술어와 같은 구실
	관형절	관형어와 같은 구실
	부사절	부사어와 같은 구실
	인용절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쓰임

(5) 주어부와 서술부

구분	의미
주어부	주어 또는 주어와 그에 딸린 부속 성분의 묶음
서술부	서술어와 그에 딸린 부속 성분의 묶음

홀문장과 겹문장

(1) 홀문장의 정의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는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져 있는 문장. 예) 그가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아기가 잔다.
--

(2) 겹문장의 정의

한 개의 홀문장이 한 성분으로 안겨 들어가서 이루어지거나, 홀문장이 여러 개가 이어져서 여러 겹으로 된 문장.

(3) 겹문장의 갈래

갈래	의미
안은 문장	문장 속에 다른 홀문장이 성분으로 들어 있는 문장
이어진 문장	홀문장이 서로 이어지거나 여러 겹으로 된 문장

이어진 문장

(1) 이어진 문장의 갈래

갈래	의미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

(2)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① 대등하게 이어짐

대등적 연결 어미 ‘-고, -(으)며, -(으)나, -지만, -든지, -거나’ 등에 의해서 이어짐
--

② 대등적 연결 어미의 갈래

갈래	대등적 연결 어미
나열	‘-고’, ‘-며’
대조	‘-지만’, ‘-든지’, ‘-나’

(3)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① 종속적으로 이어짐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짐.

② 종속적 연결어미의 갈래

갈래	종속적 연결 어미
조건 . 가정	-(으)면, -거든, -라면, -어도
이유 . 원인	-(으)니까, -(으)므로, -아서/어서
양보	-(으)ㄴ망정, -(으)ㄴ지언정
덧보탬 . 더함	-(으)ㄴ뿐더러, -(으)ㄴ수록
의도	-(으)려고, -고자
목적	-(으)러
어떤 일의 배경을 보임	-는데, -(으)ㄴ데
다른 일로 옮겨감	-다, -다가
결과가 예상의 반대임	-(으)나, -아도, -지마는, -라도
어떤 상태에 이르기까지 행위가 미침	-도록, -듯이, -게

14. <답> ①

<정답률> 28%

<정답 풀이>

㉠에서 ‘손가락이 길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문장 전체의 주어인 ‘영수는’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서술절이다. 하지만 ㉡에는 서술어 ‘(내 친구의)것이다’ 문장 전체의 주어인 ‘자전거는’을 서술하고 있을 뿐, 서술어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에서 ‘내가 빌린’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체언 ‘자전거’를 수식하는 안긴문장이다. 그리고 ㉢에서 ‘마을에 사는’ 역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체언 ‘사람들’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다.

③ ㉣에서 ‘공연이 시작되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 부사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의 ‘피아노를 잘 치는’은 안긴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 ‘잘’은 부사어에 해당하며,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는 안긴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 ‘누구보다’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④ ㉥에서 ‘공연이 시작되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다. ㉦에서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숙였음’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안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에 해당한다.

⑤ ㉧에서 ‘피아노를 누구보다 잘 치는’은 주어인 ‘영수가’가 생략되어 있는 체언 ‘영수’를 수식하는 안긴문장이다. ㉨에서 ‘마을에 사는’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체언 ‘사람들’을 수식하는데, 안긴문장의 주어 ‘사람들이’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TIP>

문장의 짜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안은 문장, 안긴 문장의 개념과 문장의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그리고 생략된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5번 문법 이론 : 중세 국어

1) 중세 국어의 특징

1. 음운상 특징

(1)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 ㅼ, ㅚ, ㅓ, ㅖ, ㅗ, ㅛ, ㅜ, ㅠ, ㅡ, ㅣ’ 등이 사용되었는데, ‘ㅚ’가 점차 소실되어 감.

* ‘ㅚ’의 소실(음소로서의 ‘ㅚ’는 18세기에 거의 소실됨. 문자로서의 ‘ㅚ’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계속 사용됨.)

① 1단계 소실(16세기):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ㅚ’가 ‘ㅗ’로 변함.

② 2단계 소실(근대에 속하는 18세기): 첫째 음절의 ‘ㅚ’가 ‘ㅗ’로 변함.

예 ㅖ을 → 마을, ㅖ습 → 마음

(2)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준수됨.

예 ㅖ매, ㅖ르매

* 모음 조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3) 성조가 있었고 방점(글자 왼쪽에 표시하여 성조를 나타낸 점)으로 표시됨.

예 나·랏 :말쌔·미

(4) 어두 자음군(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이 존재함.

예 ‘쑈’의 ‘ㅅ’, ‘ㅈ’의 ‘ㄱ’, ‘ㅊ’의 ‘ㅈ’, ‘ㅌ’의 ‘ㄷ’, ‘ㅍ’의 ‘ㅍ’

2. 표기상 특징

(1) 받침 표기가 종성부용초성에서 8종성법으로 변해 감.

① 종성부용초성: 초성에 쓰던 자를 종성에도 쓸 수 있게 함. 예 ㅈ(‘용비어천가’에서)

② 8종성법: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여덟 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로, 받침에도 이 여덟개의 자음이 표기됨. 예 스뫼디(‘훈민정음 서문’에서)

(2) 이어 적기를 함.

① 원칙적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받침에 쓰인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씀.

예 ㅈ들, 노미

② 표음적 표기(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에 해당.

(3)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예 사름마다히여수비니겨

3. 어휘상 특징

(1)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 존재.

예 어린, 어엿비

(2)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이 계속되었고, 한자어의 쓰임이 점점 증가함.

예 즘은 → 천, ㅈ릅 → 강

4. 문법상 특징

(1) 주격 조사 ‘이’가 환경에 따라 ‘이, ㅣ, ∅(zero)’의 세 가지 형태로 실현됨.

① ‘이’: 자음 뒤. 예 노미(놈 + 이), ㅈ백姓성이(ㅈ백姓성 + 이)

② ‘ㅣ’: ‘이’나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을 제외한 모음 뒤. 예 공지(공주 + ㅣ), 부테(부터 + ㅣ)

③ ∅(zero):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 뒤. 예 유익히(유익히 + ∅) 세가짓번이오

(2) 목적격 조사가 ‘을/를’, ‘을/를’로 실현됨.

예 바블(밥 + 을), 나를(나 + 를), ㅈ들(ㅈ + 을), 너를(너 + 를)

(3) 관형격 조사가 ‘의/의’, ‘ㅅ’ 계열로 실현됨.

① ‘의/의’: 평칭의 유정 명사 다음에 사용. 예 사슴의(사슴의), 도즈기(도적의), 거부비(거부의)

② ‘ㅅ’: 높임의 유정 명사 혹은 무정 명사 다음에 사용. 예 부텃(부처의), 나라(나라의)

(4) 의문문: 의문사(물음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문말 어미나 조사가 달라짐.

① 의문사(물음말)가 존재하는 설명 의문문: ‘-오’ 계열의 어미나 의문 보조사 ‘고/오’를 사용.

예 이 었던 광명고, 고원은 이제 었더호고

② 의문사(물음말)가 존재하지 않는 판정 의문문: ‘-아’ 계열의 어미나 의문 보조사 ‘가/아’를 사용.

예 서경은 편안한가 묻힌가, 이 ㅈ리 너희 ㅈ가

(5) 높임법에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

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

예 ㅎ시더니, ㅈ으샤디

②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줍-’, ‘-습-’

예 내 태탕子를 ㅈ기스보디 하늘 ㅈ기습듯 ㅎ야(내가 태자를 ㅈ기기를 하늘 ㅈ기듯 하여)

③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이 ㅅ-’

예 더욱 구드시리이다, 하나빌 미드니잇가

15. <답> ④

<정답률> 60%

<정답 풀이>

‘사슴의’의 현대어는 ‘사슴의’이므로 ‘사슴의’는 체언인 ‘둥’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또한 ‘도즈기’의 현대어는 ‘도적의’이므로 ‘도즈기’는 체언인 ‘입’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즉, 체언인 ‘사슴’에 관형격 조사 ‘의’, 체언인 ‘도죽’에 관형격 조사 ‘의’를 붙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드리’의 현대어는 ‘달이’이므로 ‘드리’는 ‘들’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것이고, ‘비취요미’의 현대어는 ‘비침과’이므로 ‘비취요미’는 ‘비취음’에 부사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네’의 현대어는 ‘네가’이므로 ‘네’는 ‘너’에 주격 조사 ‘ㅣ’가 붙은 것이고, ‘부테’의 현대어는 ‘부처가’이므로 ‘부테’는 ‘부터’에 보격 조사 ‘ㅣ’가 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부텃’의 현대어는 ‘부처의’이므로 ‘부텃’은 ‘부터’에 관형격 조사 ‘ㅅ’이 붙은 것이고, ‘가짓’의 현대어는 ‘가지의’이므로 ‘가짓’은 ‘가지’에 관형격 조사 ‘ㅅ’이 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모를’의 현대어는 ‘몸을’이므로 ‘모를’은 ‘몸’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것이고, ‘부터를’의 현대어는 ‘부처를’이므로 ‘부터를’은 ‘부터’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TIP>

중세 국어 조사의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경우 중

학습 자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고, 이를 선지의 내용과 비교하면 된다.

[16~20] 독서-인문

[지문 분석]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며, 전기는 『논리 철학 논고』로 후기는 『철학적 탐구』로 대표된다. 그는 철학적 문제가 언어의 애매한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보고(철학적 문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그의 철학적 사유는 언어에 집중되어 있다.(비트겐슈타인 철학적 사유의 특징)

1문단 :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철학적 탐구』(후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전기)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전기와 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림 이론(전기)에서는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결합한 것이라고 본다. 즉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과 달리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다.’라고 주장한다.(전기 이론과 후기 이론의 차이) 낱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후기 이론)은 언어의 낱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그러한 다양성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2문단 : 전기 철학에서 자신이 주장한 ‘그림 이론’에 대해 비판한 비트겐슈타인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비트겐슈타인은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가족 유사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으로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가족 유사성의 개념) 예컨대(가족 유사성의 예시) ‘놀이’라는 말은 카드놀이, 숨바꼭질, 끝말잇기, 축구, 야구 등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것들 전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겹치고 교차하는 성질들이 있을 뿐이다. ‘놀이’라는 낱말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들 모두에 공통되는 성질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놀이’의 본질로 고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본질(고정적인 의미)은 없고 부분들 간에 수없이 상이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유동성).

3문단 :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족 유사성’ 개념을 제시한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놀이에 비유하여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그것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언어 놀이의 개념)를 의미한다. 그가 이와 같은 개념을 고안한 것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이며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부각하기 위해서(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놀이 개념을 고안한 이유)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 놀이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것으로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며, 다양한 언어 놀이들은 공통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족 유사성을 형성하며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언어 놀이의 특성) 예컨대 건축 현장에서 누가 “망치!”라고 말했을 때, ‘망치’는 그냥 놓여 있는 망치를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치를 건네 달라는 목적으로 사용된 말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망치’가 망치라는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만 안다면 그 건축 현장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언어 놀이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 언어 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4문단 :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 또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며(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한 언어의 규칙), 언어 놀이에서 규칙에 따르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언어’(사적 언어의 개념)라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언어 놀이가 불가능한 것이다.(사적 언어의 특성)

5문단 : 언어 규칙을 공적이라 여긴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본다.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으려면 ‘정의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에서의 일치’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의의 일치’는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정의의 일치 개념)를 말하며, ‘판단에서의 일치’는 ‘낱말 적용 방식의 일치’, 궁극적으로 ‘어떤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일치’(판단에서의 일치 개념)를 말한다. 가령 ‘불다’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려면, 그 말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그 정의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불다’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도 일치해야만 한다. 어떤 사물의 색에 대해서 ‘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다’라는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삶의 형식의 일치’는 곧 정의와 판단에서도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언어 사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함을 나타낸다.(언어 사용이 일치한다는 것의 의미)

6문단 : ‘삶의 형식의 일치’를 언어 규칙 작동의 전제라고 본 비트겐슈타인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는 것은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유아론적 세계의 언어이다.(사적 언어의 특징) 언어의 규칙이 작동 가능한 영역은 ‘나의 의식’의 유아론적 세계가 아니라 나와 나 그리고 타인들을 포함한 공동체, 즉 ‘우리들의 삶’의 세계이다.(언어의 규칙이 작동 가능한 영역)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

7문단 :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긴 비트겐슈타인

• 주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의 주요 입장과 개념

1문단 :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 전기 : 『논리 철학 논고』
 - 후기 : 『철학적 탐구』
 -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철학적 사유가 언어에 집중되어 있음

2문단 : 전기 철학에서 자신이 주장한 ‘그림 이론’에 대해 비판한 비트겐슈타인

- 전기 이론 :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결합한 것임 →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임
- 후기 이론 :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음

3문단 :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족 유사성’ 개념을 제시한 비트겐슈타인

- 가족 유사성 :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함,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

4문단 :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비트겐슈타인

- 언어 놀이 :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
-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놀이 개념을 고안한 이유 :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이며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 언어 놀이의 특성 :
 -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함
 - 종류와 기능이 다양함,
 - 다양한 언어 놀이들은 공통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족 유사성을 형성하며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됨

5문단 : 언어 규칙을 공적이라 여긴 비트겐슈타인

- 언어의 규칙 = 공적
- 사적 언어 : 규칙성이 없는 언어 →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언어 놀이가 불가능하다.

6문단 : ‘삶의 형식의 일치’를 언어 규칙 작동의 전제라고 본 비트겐슈타인

-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 →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기 위해서 ‘정의의 일치’ + ‘판단에의 일치’가 필요함

7문단 :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긴 비트겐슈타인

- 언어의 규칙이 작동 가능한 영역 = ‘우리들의 삶’의 세계

16. <답> ②
<정답률> 78%
<정답 풀이>

2문단에서 그림 이론(전기 철학)에서는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결합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이 전기 철학에서 문장에 사용되는 낱말들의 의미가 문장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 : 낱말 → 문장 / 선지 : 문장 → 낱말)

- <오답 풀이>
- ① 2문단의 ‘그림 이론(전기 철학)에서는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결합한 것이라고 본다. 즉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5문단의 ‘언어의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 또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5문단의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언어 놀이가 불가능한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6문단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선지의 핵심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지문을 읽으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선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번 : 전기 철학에서의 낱말의 의미
2번 : 전기 철학에서 문장에 사용되는 낱말들의 의미
3번 : 후기 철학에서 언어 놀이의 규칙
4번 : 후기 철학에서 ‘사적 언어’
5번 : 후기 철학에서 삶의 형식의 일치

17. <답> ①
<정답률> 81%
<정답 풀이>

2문단의 ‘낱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 파악된다는 것이다.’라는 내용과 4문단의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 언어 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를 바탕으로 언어의 낱말이 ‘언어 놀이’에서 규칙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가), (나) 사례는 ‘벽돌’, ‘석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언어 놀이’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언어 놀이의 기능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보기>의 (가)와 (나)에서 ‘벽돌’, ‘석판’을 사용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삶의 형식에 기반한 규칙에 따라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

단할 수 있다. 이러한 <보기>의 내용과 6문단의 ‘언어 사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함을 나타낸다.’는 내용을 통해,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③ 4문단의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그것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를 의미한다.’라고 했으므로, (가)와 (나)에서 건축가와 조수, 사범과 훈련생의 의사소통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인 ‘언어 놀이’의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④ <보기>의 (가), (나)에서 건축가와 사범은 ‘벽돌’, ‘석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조수와 훈련생은 서로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수와 훈련생이 각기 다른 규칙에 따라 ‘언어 놀이’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⑤ <보기>의 (가), (나)의 조수와 훈련생이 ‘벽돌’과 ‘석판’이라는 말을 각각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만 안다면 (가), (나)의 맥락에 맞게 행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맥락에 맞게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각각의 상황에서 ‘언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TIP>

핵심 개념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건축가와 사범의 동일한 벽돌, 석판이라는 말에 조수와 훈련생은 서로 다른 행동(가져다주는 행위와 격파하는 행위)을 한다. 이를 파악한 후 선지의 내용과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의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18. <답> ④

<정답률> 72%

<정답 풀이>

[A]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본다.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으려면 ‘정의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에서의 일치’도 요구된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토끼나 오리의 형상에 관한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의의 일치’와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려면, 그 말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그 정의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붙다’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도 일치해야만 한다고 했으므로 ㉔를 ‘오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 ‘정의의 일치’와 ‘판단에서의 일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보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과 관련하여 ㉔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㉔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㉔가 대상을 보는 방식이 삶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A]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본다.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으려면 ‘정의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에서의 일치’도 요구된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오리’나 ‘토끼’라는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㉔를 설명하는 언어 사용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⑤ ㉔를 ‘오리’나 ‘토끼’로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㉔를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일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낱말을 발화하면 필연적으로 그 낱말에 대한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낱말의 사용 여부가 ㉔를 ‘오리’나 ‘토끼’로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TIP>

핵심 개념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설명과 선지의 내용을 지문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삶의 형식’과 관련하여 비트겐슈타인은 ㉔에 대해 논의하면서 ㉔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선지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번 : 정의의 일치와 판단에서의 일치

2번 : 삶의 형식과 무관함

3번 : 정의의 일치, 언어 사용

4번 : 삶의 형식의 일치, 판단에서의 일치

5번 : 판단에서의 일치

19. <답> ②

<정답률> 61%

<정답 풀이>

3문단의 ‘가족 유사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으로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와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를 바탕으로 가족 유사성은 언어가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족 유사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언어 표현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는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족 유사성’은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언어 놀이의 규칙이 언어 놀이들 간의 유사성과 관련이 없음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족 유사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각각의 언어 놀이를 다른 언어 놀이와 뚜렷하게 구별시켜 주는 변별점이 된다는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족 유사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언어 표현이 지칭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이 지닌 공통된 성질이 그 표현의 의미가 됨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TIP>

핵심 정보의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㉑은 3문단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선지의 핵심 내용과 지문의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번 : 분류 기준

2번 : 다양한 의미

3번 : 언어 놀이의 규칙

4번 : 변별점

5번 : 공통된 성질이 그 표현의 의미

20. <답> ①
<정답률> 62%
<정답 및 오답 풀이>
5문단의 ‘그에 따르면,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언어 놀이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내용에 따르면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규칙을 따를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나의 의식’에 기초한 사적 언어는 규칙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IP>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고 했으므로 사적 언어와 관련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과 관련한 지문의 내용과 선지를 비교하면 된다.

※ 본 해설 자료는 홍보용으로 공유되는 자료로서, 20번까지만 제공됩니다. 21번부터는 나무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아카데미의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할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모든 불법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캡처되고 있습니다.

등급컷

등급	원점수
1	81
2	74
3	65
4	56
5	46
6	35
7	25
8	17